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1월 22일 (제82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정직과 진실

‘나에게는 정직하고 남에게는 진실하라’고 나는 말한다. 사람들은 정직이나 진실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직이란 마음에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이기에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라면, 진실은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포함한다.

나는 어느 제자에게 “네가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너는 진실하지는 못해.”라고 말했다.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그를 나무란 것이다. 어찌 그 목사뿐이라. 교회 안에 정직한 사람들은 많으나 내 견지로는 진실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외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군이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또한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말씀이다. 진실의 결핍, 이것이 국가의 발전을 막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인간관계를 흐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다(시33:4).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만물을 준비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희생을 치르셨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은 만국 공통의 화폐다. 진실은 어디서나 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통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자라 하시며 이 땅에서 뿐 아니라 그날에 상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먼저 위기가 온다.”

목사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실상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이 앞선다. 25년의 해외집회 동안 우리는 거의 야외집회를 진행해왔다. 날씨는 항상 가장 선결되어야할 난제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서 집회를 앞두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면 지금도 떨컸는 마음이다. 비바람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말이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그러한 위기 앞에 나약해지는 나를 발견한다.

이번 1체육관 입성을 앞두고도 우리 앞에 나타난 위기의 징후는 한두 가지가 아

님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기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손 놓고 보고만 있었겠는가? 어떤 식으로든 공사를 지연시켜 우리의 1체육관 입성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있었을 것이다.

치열한 영적 싸움 끝에 체육관 내부만 사용하고 기타 부속실이나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가름막도 철거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산 너머 산이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텐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니, 더구나 공사가름막으로 인해 출입구도 한 군데밖에 사용할 수 없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성도들이 편히 거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안전문제에다가 불편함이 가증되는 형국이었으니 말이다. 목사님의 번민이 오죽하셨

그러나 목사님은 금요일저녁예배를 통하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노라!” 선포하셨다. 이 한 마디로 모든 번민의 시간은 끝이 났다. 또한 치열했던 영적 전쟁도 이 한 마디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아마도 악한 마귀는 또 한 번 패퇴하며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목사님과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향해 더욱 이를 갈았으리라. 입성예배를 하루 앞둔 토요일, 우리는 모두가 합심 합력하여 예배 준비에 온 힘을 다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의자를 깔고, LED 설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았다. 주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비록 화장실도 불편하고, 출입구도 제한되어 여러 가지로 미비하지만, 새롭게 단장된 성전으로 들어와



1 체육관 입성 감사예배

니었다. 15일 추수감사예배를 완공된 1체육관에서 드릴 수 있다고 공연하던 체육관 측에서 갑자기 공사가 지연되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1체육관 입성을 공포하고 전도의 불을 잔뜩 지펴놓은 마당에 물러설 수도 없는데 말이다.

그야말로 위기였다. 이는 곧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다. 1체육관의 리모델링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공사완료 후 첫 개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 하

겠는가. 그렇다고 입성을 연기할 뚜렷한 명분이나 대안도 없다. 물론 성도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도해온 것이 있고, 이 날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한 그 열기를 외면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금요일, 저녁예배를 앞두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바람도 몰아쳤다. 가림막이 쳐있는 1체육관의 모습은 더욱 황량했다.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기뻐할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건만, 주여,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진 1체육관 입성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한마음 한 뜻으로 전도에 매진한 결과, 오전, 오후에 배 모두 성전을 가득 메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도하며 수고해주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오후 3시 예배에 병든 자들을 안수해주셨다



새성전 새역사를 선포하시는 목사님



청년 워십팀의 축하공연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1:1)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혜(智慧)’란 한자를 풀어보면, 알 지(知)에 날 일(日)이 붙어, 곧 날마다 새로운 것을 알기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1:1) 성경을 통틀어 말씀하시기를,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 알기 원하는 자’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시자이자 아이폰으로 세상을 뒤바꾼 스티브 잡스는 7년간 암으로 투병하다 죽기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바로 내가 누워있는 이 병원 침대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와 명예만을 바라보며 달렸던 지난날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아픈 것은 무엇도 대신 해주지 않았다. 허망하게 살다 간다. 그러나 예수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55세에 불치병 진단을 받아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지만,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더니 100세가 다되도록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과연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돈과 명예,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히9:27).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그의 삶의 마

푼 더 벌겠다고, 또는 명예와 권력 좀 더 얻어 보겠다고 안달복달하며 이 세상의 삶에 급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부자로 태어나 부자로 살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지만, 예수를 모를 때는 절까지 짓고 온 식구가 날마다 우상단지 앞에서 빌며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글썽, 그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믿지 않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계산이 없어서 뒷벽이 다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광에 나무를 밀어 넣는 어리석은

꿈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 는 것도 모 른 채 돈 많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 별 고 공부 많 이 하면 뭐합 니까? 내세에 대

한 계산이 있어야 지혜로운 자지요. 전도자의 말처럼 재물이 내게 해가 되도록 쌓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야지요. 내가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고, 나는 영생을 쫓아가야 참 지혜자란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고 명하셨습니다(출20:3). 누군가에게는 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명예, 학벌이, 또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우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육체 가운데 귀신들을 투입하여 절에 가서 절하게 하고 돌 앞에, 새겨 만든 우상 앞에 절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우리가 만드신 이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이후에

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이제 틀렸다고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세요.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출20:8)입니다. 옛날 동안은 힘써 일하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와 일하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 려워 하지 요? 돈 때문

에 , 또 는 잘릴까봐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 의 아들은 주일 하루에 삼사백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장 문을 과감히 닫고 예배에 온답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합격했지만 주일에도 근무하라는 회사의 요구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했더랍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안보시겠습니까? 주일에 올릴 수 있는 대상을 나머지 옛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비록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맞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리라 확신을 가져야지요.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이 있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요삼1:2)? 그러니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일에 일하거나 남에게 일을 시키며 나와 내 영혼 모두를 갇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을 더는 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요4:23~24).

요즘은 애들 공부한다고 어른들은 뒷전이고 아이들이 상전이 되는 집안이 많아 면서요? 이거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손자에게 음식 좀 씹어 먹인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타박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고, 네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서로 섬기면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자녀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 하지 않습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전도사들, 그리고 장로, 권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 때 돈, 공부, 명예가 전부라고 쫓아다니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예수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육체를 입어 기회가 있는 지금, 예수를 붙잡으세요. 부와 명예를 쌓지만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알며 남에게 나누어주며 사세요. 그러면 흔들려 넘어 넘치도록 내게 돌아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이만하면 됐지’하며 안일한 장로, 권사, 집사들 많지요? 그러다 자칫 영생줄 놓치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영의 안테나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막 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바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부리며 돈과 명예, 권력을 더 가지려 하지만 결국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고요(전5:10~15). 요즘 보니까 부자 부모로부터 유산을 서로 더 받겠다고 형제끼리 치고받고 분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다 유산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모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지요? 고로 돈, 명예,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며 살던 부자는 죽은 후 지글지글 불타는 지옥 불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며 괴로워했지만, 이 땅에서는 비록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힘썼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안식을 취합니다(눅16:19~3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몇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최고의 교보재는 당신입니다

주일에배가 끝나고 모처럼 목양실이 한산했다. 여느 때 같으면 고민거리와 기도제목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님들로 인해 매번 식사도 거를 지경이었건만...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났다. 5살 이삭이, 6살 시은이와 효주였다. 그러더니... 상담해달란다. 이삭이는 ‘동생 새싹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챙겨줘야 잘 하는 건지’ 궁금해 했다. 시은이는 ‘기관지가 약해서 매번 고생하는데 어떡하느냐?’고 묻는다. 효주는 ‘부끄러운 습관이 있는데 이걸 고칠 방법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왔다. 어린애들이라고 왜 생각이 없고 고민인들 없겠는가! 그런데 질문의 난이도가 상당했다. 귀한(?) 걸음을 해준 꼬마 성도님들을 위해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해줬다. 아이들은 상담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 받아든 사랑 두 알 때문인지 매우 만족스런 표정으로 목양실을 나섰다. 그러자 밖에 있던 자모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어, 너희들이 목사님 방에서 왜 나오는 건데. 몰래 들어가서 사고 친 거 아냐?” “사고 친 거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상담했거든요~!” 이삭이의 너스레에 황당해하는 자모들에게 아이들과의 상담내용을 들려주며(물론 이처럼 상담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다) 얼마나 배를 잡았는지 모른다. 요즘도 종종 꼬마 성도님들은 목양실의 문을 두드린다. 그들 나름의 고민과 기도제목들을 가득 안고서... 누구에게 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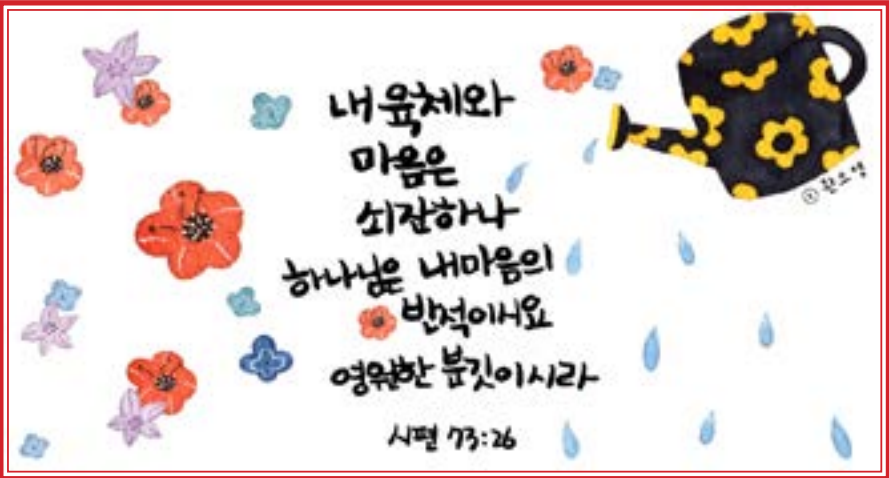
배워서일까? 그럴 리 없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 ‘일생지계 재어유(一生之計 在於幼)’라 했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다’는 의미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겠는가! 무한경쟁사회에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외국어를 가르치고, 셈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치기에 앞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옳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 무엇보다 좋은 교보재는 바로 부모 자신이다.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부모, 정직하고 부지런한 부모의 모습만큼 더 나은 교보재는 없다! 오늘부터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함께 모여 기도로 마무리해보자. 주일에배를 마치면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복기해보자. 아침에 출근하는 길,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암송할 말씀들을 문자로 전송해보자. 말씀 가운데 성장한 자녀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장점을 보자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청년은 결혼을 하자마자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매일 한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지적해주었습니다. 몇가지 단점만 고치면 완벽한 아내가 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완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만 갔고 기존의 장점들마저 사라져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하루도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어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고 부부는 더 없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요? 칭찬 듣는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가 사명 감당했으며, 칭찬받은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됐으며, 배가

시킨 종들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마25:21)이라고 칭찬하였습니 다. 또 충동적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요21:15~17) 하셨습니다.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기보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여주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 이초석 목사님도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신 듯합니다. 늘 다혈질이던 부족한 종을 그리도 긴 시간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아주 작은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 베드로가 그랬고, 도마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묵묵 바쳐 충성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봅니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세상을 보는 창::

내 영적(마음) 온도는 몇 도(°C)?

-훈련을 하다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까지 열심히 올려놓아도 마지막 1℃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여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김연아의 7분 드라마 중에서)-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물은 99℃에서 절대 끓지 않는다. 물은 오직 100℃라는 온도에 도달하였을 때만 끓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두고 사람의 인생과 빗대어 곧잘 이야기하곤 한다. 얼마 전 종영한 TV프로그램 강연100℃는 바로 이 온도를 가지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지혜를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나와서 100도℃ 강연을 한다. 강연 후 방청객들의 심리로 공감 퍼센트

를 측정하는 교양 프로그램인데 그래서인지 더 공감이가고, 웬지 모르게 힘이 생기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아마도 그것은 100℃에서만 끓는 순수한 물은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물을 끓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열을 가해 끓는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과 반대로 끓는점을 낮추는 방법. 즉 불순물이 들어간 물은 100℃가 되기 전에 끓어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물이 더러울수록 끓는점은 더욱 내려간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첫사랑이 아마도 100℃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는 나태함 속에서 신앙의 임계점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끓는점, 전도의 끓는점, 사랑과 봉사, 그리고 감사의 끓는점에 타협과 게으름이라는 불순물을 섞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훈련이 들어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처럼, 세상을 사랑해 나간 데마처럼 말이다.

우리 몸의 온도, 체온은 36.5℃이다. 그런데 1℃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하고 반대로 체온이 1℃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1℃는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임계점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난다. 인생을 살다가 조금 힘들어서 99℃에서 타협을 하면 1℃ 차이로 끓지 않는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흥분된 심장이 지금도 동일하게 뛰고 있다고 고백한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차선은 없다. 오로지 최선뿐이다.” 라고 외치며 신앙의 온도 1℃를 더 올리고 계신다. 예수님을 사랑한 모든 믿음의 선전들, 특히 마리아는 그의 인생이요 삶의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마음의 온도를 1℃ 더 올려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 당신의 영·혼·육의 온도는 지금 몇℃ 인가? 99℃의 물은 그냥 뜨거운 물이지만 1℃만 더하면 열차와 배를 움직이는 뜨거운 수증기를 만들 수 있다. 이정금 jungkm@nate.com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서울교회의 예배처소인 KBS 스포츠월드 제1관 리모델링 후 첫 개관에 맞춰 영혼을 하나님께 추수해 드리자며 모든 성도가 전도에 매진하였습니다. 저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도 전도차 과거에 다니던 회사의 후배를 불러 맛있는 밥을 사주고 후배의 고민상담도 해주면서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때, 후배가 교회에 갈 테니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은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변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해결하겠지만 이런 부탁을 받은 지인분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공공 앞은 지 하루, 불현듯 총회장 목사님의 음성, ‘목적물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 여름 수련회 때도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회사에서 살았던 선배에게 눈 딱 감고 머리를 조아렸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번 주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답은 하나 오직 전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타이틀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런 작은 고민을 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후배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지인 분에게 간곡한 청을 드렸더니 전도하는데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기쁘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주님 일에는 무조건 제 자존심은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어하겠습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잇음의 축복

멕시코의 전설적인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는 6세 때 소아마비, 18세에 대형교통사고로 얻은 육체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인물이다. 그런 그녀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한다. “아버지, 좋은 결혼의 조건이 뭐가요?”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짧은 기억력!” 골프계의 전설 잭 니콜라우스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많은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답했다. “실패한 샷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컴퓨터도 지워야할 파일들을 빨리 지워서 정리하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나가 아날까? 우리 자신을 옥죄고 있는 과거의 죄와 실수, 누군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놓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묶여 버리니 말이다. 잇을 것은 잇고 정리할 감정들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삶도 비로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요셉이 드

디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 첫째의 이름은 므낫세, 즉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제 잊어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다(창41:51). 그 결심에 성공한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즉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뜻으로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심을 확인하시고 비로소 형들을 다시 그에게 보낼 타이밍을 맞추게 되었다. 결국 그의 잇고자 하는 결심의 씨앗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 전체,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다윗이 밋세바를 취하여 얻은 첫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7일을 금식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으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 자신을 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멀어질 핑

계를 찾지 않고, 아이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징계를 깨끗이 잇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히 살아간 것이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이후 밋세바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기록하게 하심은 물론이고, 두 번째로 태어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 즉 ‘여호와에게 사랑을 입은 자’라는 별칭을 주신다. 다윗이 죄에 대한 대가는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될 지라도 그의 실수는 깨끗이 잇으시고 다시금 사랑하실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 쫓아간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 43:25)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잇음’ 안에서 얼마나 완전해지는지를 증명해 주신다.

‘잇음’,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어려운 숙제이자 가장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아닐까 싶다.

하인명
renming@daum.net

가는 삶이고,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이 언제부터입니까?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실상은 전후반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삶보다도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며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에 가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신뢰회복!

검은콩 한말과 흰콩 한 말을 섞는 데는 한 순간이지만 다시 원래대로 고르려면 한 나절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처음 신뢰를 얻었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두 번 속고 싶지 않은 탓에 상대가 더 엄격하고 신중한 마음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백년된 나무를 자르는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리치몬드에서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여 힘들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 사람이 교회 복도를 지나다가 자신을 위해 힘껏 기도해주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으면서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하며 인사를 건네자 그 사업가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되물었더니 “예,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끝까지 성실하게 채권자들을 상대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제 신뢰를 건졌으니 다시는 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은 격려해주었습니다. 이에 낙심에 빠져있던 그 사업가는 새 출발하여 재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과 회개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멀리 보는 큰 안목으로 신뢰를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신뢰는 다른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핵심명제이며 더 강력한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시32:10).

Good News

어떤 부자 집에 멍청하게 보이는 머슴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머슴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며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거든 이 지팡이를 주고 오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머슴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나실 건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죽고 나면 끝인데 준비할 필요가 어디 있다고…” 그러자 머슴은 주인에게 받은 지팡이를 도로 돌려주며 “이 세상에서 주인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여행길을 떠나도 준비할 것이 많고, 동식물들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우살이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때를 준비하지 않는 주인이야말로 머슴의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보내고 태어나서 길게 살아야 백년을 살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생복락의 천국과 꺼지지 않는 불못인 영벌의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므로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밤 버포드’의 ‘하프 타임’이라는 책에는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고 하면 전반전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10월 초, 올해도 어느 해와 다름없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영화들을 보기 위하여 부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몇 편의 영화를 보는 내내 다른 때와 달리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나를 짓눌러왔다. 그런데 영화제 마지막 날, 프랑스 영화 한편을 보면서 ‘아~!!’하고 순간 스쳐가는 깨달음을 통해 영화제 내내 불편했던 답을 찾게 되었다.

영화들은 대부분이 사랑을 노래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성대했던 개막작도, 명성이 자자한 감독의 영화도 모두 추구하는 것들은 인도의 불교를 근간으로 한 사랑과 평화였다. 결국 영화제에 상영된 대부분의 영화는 ‘뉴에이지’를 표방하는 것들이였다. 영화들은 아름다운 배경과 음악으로 사랑과 나눔,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

며 관객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지만, 정작 그 사랑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었다. 불교를 근간으로 한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평화와 위로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찾는 안식과 평화였다.

올 초 ‘뉴에이지’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화를 보는 순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영화를 보면서 무한 감동을 느끼며 행복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알게 모르게 ‘뉴에이지’에 점점 젖어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여러 종교계에서 강조하는 이른바 ‘하나 되기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 얼마 전 어느 바자회를 우연히 찾게 되었는데, 지역 사찰과 교회와 성당이 연합으로 주관하는 것이였다. 다들 모든 종교는 하나로 일치

된다는 엄청난 착각의 가르침에 속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세상은 스피치에 스며드는 물처럼,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사랑을 은근 슬쩍 빼버리고 사탄이 선물한 사랑과 평화와 희망을 노래하면서 다가오고 있다. 달콤하고 은은한 멜로디와 메시지에 젖어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대의 사상 속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알고 배우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가 아니다. 진리이다.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주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